■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63-88.
http://doi.org/10.17948/kcs.2023..98.63

【 특집 : 담정 김려의 문학과 그의 시대 】

# 김려 한시의 개성, 인정(人情)의 발견과 형상화 방식
## —「감담일기(坎窞日記)」의 증별시(贈別詩)를 중심으로—

강혜선(姜慧仙)*

목 차

1. 서론
2.「감담일기(坎窞日記)」 소재 증별시(贈別詩)의 개성, 오언고시에 담은 인정(人情)의 발견과 형상화
3. 결론,「사유악부」로의 발전과 그 의미

**국문초록**

김려는 유배를 통해 그의 인식, 세계관이 변화하고 문학 또한 변화하였는데, 유배 경험의 첫 번째 창작물이「감담일기(坎窞日記)」이다.「감담일기」에 수록된 몇 편의 증별시(贈別詩)는 그의 시적 개성이 본격화된 작품으로 이후「사유악부(思牖樂府)」로 발전하였다.〈冒寒入龜山, 留別南生仲厚〉,〈入高原郡, 別申端公希顚歸文川〉,〈高驂驛舍, 留別父老〉의 세 사례를 들어 인정(人情)의 발견과 형상화 방식을 분석하였다. 세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가 만난 특별한 인물을 묘사하고, 그 인물과 나눈 체험을 서사하며, 자신이 받은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 중편의 오언고시 형식의 증별시를 선택하였다. 둘째, 증별의 대상이자 시속 인물은 그가 유배길에서 처음 만난, 계층과 신분을 달리하는 주변부 사람들이다. 셋째, 시상의 전개는 '인물의 등장과 소개 - 인물이 자신에게 보여준 온정의 행동과 말의 극적 재현'이란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곧 인정의 형상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편의 증별시는 이별의 현장에서 써서 준 시가 아니라 유배지 부령에 도착한 후 쓴 시들로, 남이곤, 신희정, 고참역 촌로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인정과 자신의 감동을 추억하고, 그들과 나눈 교감과 그 교감으로 인해 새롭게 알게 된

*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간 이해를 기념하고자 쓴 시이다. 즉, 김려는 인정을 형상화한 증별시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적, 독자적 '기억의 시, 추억의 시, 기념의 시'를 남긴 것이다. 이는 이후 진해 이배(移配) 후 부령의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쓴 「사유악부」로 발전하였다.

주제어: 인정(人情), 형상화, 유배, 「감담일기」, 오언고시, 증별시, 「사유악부」.

## 1. 서론

담정(潭庭) 김려(金鑢, 1766-1821)는 남북한이 함께 중시하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문인이다. 소품문(小品文)의 작가로서, 야사(野史) 및 『담정총서(潭庭叢書)』 편찬자로서 주목받기도 하지만, 김려는 무엇보다도 조선 후기 한시사(漢詩史)에서 개성적·독자적 세계를 보여준 한시 작가, 시인이라 평가할 수 있다. 김려 한시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1], 박혜숙의 「사유악부(思牖樂府)」 연구가 중요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박혜숙에 의하면, 「사유악부」의 세계는 민간의 세계를 그저 바라보는 차원에서 인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 당대의 민중을 추상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피와 살을 갖춘 구체적 인간으로 이해하면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는 경지에까지 나아갔다. 요컨대 김려의 시적 감수성은 현저히 탈중심적 성격을 보이는바, 하층민, 변방민, 여성 등의 '주변부'를 향하고 있으며, 또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그의 감수성은 하찮은 동물이나 사물까지 미치고 있다.[2] 이 연구의 시각 역시 박혜

1) 홍진옥, 「담정(潭庭) 김려(金鑢) 문학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1-6면에 김려 문학 연구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는 최근의 한시 관련 연구논문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사유악부」에 사용된 창작기법과 수사적 특질을 분석한 논문으로 申章燮, 「潭庭 金鑢의 「思牖樂府」와 修辭的 特質」(『語文論集』, 중앙어문학회, 2017); 김려의 선진적인 여성관을 보여주는 기녀 소재 한시들—「사유악부」의 연희 및 부령 기생들 대상의 한시, 해배 후의 작품 〈哀李酒媼十首〉를 분석한 논문으로 박준원, 「金鑢의 한시에 나타난 '妓女'의 문학적 형상」(『동방한문학』 74, 동방한문학회, 2018); 『우해이어보』 소재 한시의 일상성과 통속성을 설명한 이힐한, 「김려의 유배 체험 한시에 나타난 일상성과 통속성」(『한국지역문학연구』 8, 한국지역문학회, 2019)이 있다. 또, 홍진옥의 앞의 논문에서는 민중층의 환대와 유배인의 초상을 그린 「사유악부」, 심층적 인간 이해와 반성적 성찰을 보여주는 〈심씨를 위해 지은 시〉, 사대부 문인의 일상을 읊은 「만선와잉고」, 지방관으로서의 삶과 연산의 모습을 읊은 〈황성이곡〉, 한양의 정월 대보름 풍경을 읊은 〈상원이곡〉이 분석되었다.

2) 박혜숙, 「사유악부 연구」(『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담정(潭庭) 김여(金鑢)—새로운 감수성과 평등의식」(김여 지음, 박혜숙 옮김, 『부령을 그리며』, 돌베개, 1996).

숙의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연구의 주안점은 구체적인 작시 양상을 통해 김려가 새롭게 성취한 한시의 개성과 의미를 조명하는 데 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작시 양상을 분석하기 전에 김려의 한시를 대하는 현대의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시 연구의 자료 선택과 작품의 평가는 모름지기 한시를 생산한 당시의 시인, 비평가들이 직접 편찬한 선발 책자와 비평서에 일차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3]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오늘날 연구자들이 조명한 작품들은 그런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있다. 『대동시선(大東詩選)』 권7[4]에 선발된 김려의 한시는 연구자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근체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시를 선발한 『대동시선』은 김려의 한시도 근체시 위주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작품은 〈늦봄의 유람. 2수(晩春游覽 二首)〉(칠언절구)[5], 〈길에서 말을 탄 낭자를 보다(路見騎馬女娘)〉(칠언절구)[6], 〈도성에 들어가는 동자 노순흠을 보냈는데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아(送童子盧舜欽入城, 日暮不還)〉(오언율시)[7], 〈재거잡술(齋居雜述)〉(오언율시)[8], 〈당진으로 부임해 가는 여원 조기복과 작별하며(別趙茹園基復之任唐津)〉(칠언율시)[9], 〈겨울날 이우신과 작별하다(冬月, 別李徵君友信)〉(22구의 오언고시)[10]이다. 한 수를 제외하면 모두 근체시이고, 〈황성리곡(黃城俚曲)〉의 한 수인 〈길에서 말을 탄 각시를 보다(路見騎馬女娘)〉(시의 주석에 보이는 "수유참 길에서 어여쁜 한 여인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水踰站路上, 見一女妖嬈騎馬而去)"를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됨)를 제외하면, 모두 「귀현관시초(還玄觀詩草)」에서 선발되었다. 김려가 「귀현관시초」를 정리한 뒤 쓴 제후(題後)에 의하면, 7-8수 정도가 1801년 이전 작품이고 나머지 모두는

3) 민병수, 『韓國漢詩史』, 태학사, 1996, 10면.
4) 이하 인용하는 『대동시선』 권7 수록의 제목은 『大東詩選』(아세아문화사, 1983)을 대상으로 하였다.
5) 이 두 시는 『담정유고(薝庭遺藁)』 권1 「귀현관시초(還玄觀詩草)」 〈늦봄의 유람. 절구 12수(晩春游覽, 絶句十二首)〉 중 제9수와 10수이다. 이하 인용하는 김려의 시는 『薝庭遺藁』(한국문집총간 289. 고전번역원 DB)를 대상으로 하였다.
6) 이 시는 『담정유고』 권2 「간성춘예집(艮城春囈集)」 〈황성리곡(黃城俚曲)〉 제61수이다.
7) 이 시는 『담정유고』 권1 「귀현관시초」에 보인다.
8) 이 시는 『담정유고』 권1 「귀현관시초」 〈재거잡술(齋居雜述)〉 3수 중 제3수이다.
9) 이 시는 『담정유고』 권1 「귀현관시초」에 보인다.
10) 이 시는 『담정유고』 권1 「귄현관시초」에 〈冬日, 別李徵君友信〉으로 수록되어 있다.

1801년 이후의 작품들이라 하였는데, 실제 수록된 작품들을 보면 해배 이후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대동시선』은 김려의 많은 한시 중에 해배 이후 지은 근체시에서 수작(秀作)을 뽑은 것이고, 이는 곧 김려의 유명한 시로 이 작품들이 19세기 중후반 문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음을 의미한다. 『대동시선』에 선발된 작품 중 두 수를 통해 전통적인 관점에서 높이 평가받은 김려 한시의 성격을 보기로 하자.

〈늦봄의 유람. 2수(晩春游覽 二首)〉 중 첫째 수

歸鹿亭荒澗水濱　　냇가의 귀록정 황량하니
相公豪貴似浮雲　　상공의 부귀도 뜬구름 같네.
浣紗古石無人管　　비단 빨던 옛 바위는 돌보는 이 없어
只敎村婆曬布裙　　시골 노파만이 치마를 말리고 있네.
정자는 본래 손가장(孫家莊)인데 후에 상국 조현명의 교외 별장이 되었다. 지금은 팔려서 감사 김계온의 소유가 되었으나 모두 황폐해졌다.(亭故孫家莊, 後爲趙相國顯命郊莊, 今賣爲金監司啓溫家物而盡荒廢)

〈길에서 말을 탄 각시를 보다(路見騎馬女娘)〉

芎藭香動綠長衣　　초록빛 장옷에서 궁궁이 향이 진동하고
快馬平原健似飛　　들판의 날랜 말은 날듯이 달리네.
皮竹箱子紅袱裹　　피죽상자, 붉은 보자기 싣고서
新婚閣氏現姑歸　　신혼의 각시가 시댁으로 가는구나.
수유참 길에서 어여쁜 여인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짐 실은 말에 햇살 무늬 붉은 비단 보자기와 오색 피죽상자가 보였다.(水踰站路上, 見一女妖嬈騎馬而去, 卜駄中, 見日紋紅錦袱 , 五色皮竹箱子)

칠언절구 연작 〈늦봄의 유람. 12수(晩春游覽 十二首)〉는 김려가 늦은 봄 이웃 소년들에게 이끌려 상춘 유람을 하며 쓴 시이다. 이때 김려는 북영(北營)의 몽답정(夢踏亭), 성균관 동북쪽의 송동(宋洞), 인수교(仁壽橋), 북저동(北渚洞) 등을 배경으로 시를 지었다. 위 시에 보이는 귀록정(歸鹿亭)은 바로 북저동에

있던 정자로, 주석에서 보듯이 본래 손가장(孫家莊)이었다가 상국 조현명의 교외 별장을 거쳐 그가 찾아갔을 때는 감사 김계온의 소유가 되었으나 모두 황폐해진 상태였다.[11] 그런데 이 시는 이런 주석이 없더라도 충분히 정경이 그려지는바, 북저동 시냇가의 귀록정을 찾으니 조상국의 옛 영화는 찾을 길 없이 황폐해져 있고, 한때 문인들의 상춘 명소였던 시냇가 바위에는 시골 노파만이 치마를 말리고 있다 하였다. 이 시는 당시(唐詩)의 대가 최경창(崔慶昌)의 시 〈대은암(大隱巖)〉과도 견줄 만한데, 황량한 귀록정 풍경과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담담하게 대비하고 있어, 전통적 한시의 보편적 정감을 잘 표현한 시라 할 수 있다. 〈길에서 말을 탄 각시를 보다(路見騎馬女娘)〉는 김려가 1817년 연산 현감이 되었을 때 지은 칠언절구 장편 연작시 〈황성리곡(黃城俚曲)〉 204수 중 한 수이다. 이 시는 수유참 시골길에서 본 정경으로, 조선 후기 성행한 절구 형식의 기속시(紀俗詩)에 해당한다. 초록색 장옷을 둘러쓴 여인이 궁궁이(천궁) 향기를 진동하며 날랜 말을 타고 씩씩하게 날 듯이 달린다. 그 뒤를 짐 싣는 말이 죽피상자와 붉은 보자기로 싼 보따리를 얹고 뒤따른다. 신혼의 각시가 친정에서 시댁으로 신행 가는 정경을 읊은 이 시는 특히 가마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평원을 날듯이 달려가는 신부라는 독특한 제재를 생동감 넘치게 포착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상에서 『대동시선』에 선발된 두 편의 근체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김려의 근체시는 전통적, 관습적 한시의 서정과 작시 방식을 계승한 위에 새로운 감성을 더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김려 한시의 개성과 독자성이 가장 두드러진 시는 무엇이며, 현대의 우리가 더욱 공감하거나 감동 받는 김려의 시는 무엇인가? 그 답은 선행연구사로 돌아가 찾을 수 있다. 남북한 모두 김려의 문제적 작품으로 「사유악부」와

11) 손가장(孫家莊)은 서울 성북구 정릉 일대에 있었던 밀양 손씨 집성촌을 가리킨다. 북한산 아래에 있어서 그 풍광을 사랑한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19세기 전반에 작성된 『동국여도(東國輿圖)』에도 정릉천(貞陵川)을 중심으로 손가장이라는 마을이 뚜렷이 표시되어 있다. 현재는 이곳에 '손가정터[孫哥亭址]'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제2편 한성부(漢城府)(고전번역원 DB)에는 "조문명(趙文命)의 집 낙선방(樂善坊) 묵사동(墨寺洞)에 있다. 귀록정(歸鹿亭)이 있는데, 일찍이 푸른 실로 사슴을 정자 아래에 매어 두었다."라 하였다. 북저동은 묵사동(墨寺洞), 북사동(北寺洞) 등으로도 불렸는데, 지금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城北洞)에 해당한다. 북저동은 자하동 북쪽의 도화동(桃花洞)과 더불어 복숭아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였다.

〈고시. 장원경의 처 심씨를 위하여 짓다(古詩. 爲張遠卿妻沈氏作)〉(북한에서는 이 작품을 〈방주의 노래〉로 소개하면 인간 평등 인식을 보여준 조선 후기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함)를 지목하고 있다. 박혜숙의 연구에서 이른바, 하층민, 변방민, 여성 등의 주변부의 인물을 피와 살을 갖춘 구체적 인간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야말로 김려 한시의 의의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개성적 한시 세계로 변화하기 시작한 지점에 「감담일기(坎窞日記)」 소재 중편 오언고시(五言古詩) 증별시(贈別詩)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려의 삶에서 유배의 경험은 유배 이전과 유배 이후의 세계로 나누는 분기점인바, 유배의 경험을 통해 그의 인식, 세계관이 변화하고 문학 또한 변화하였다. 그 유배 경험의 첫 번째 문학 창작물이 바로 「감담일기」이다.[12] 「감담일기」 소재 증별시(贈別詩)에 뚜렷하게 보이는바, 인정(人情)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변화의 출발점을 설명하고, 이를 「사유악부」의 시적 성취와 연결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 2. 「감담일기(坎窞日記)」 소재 증별시(贈別詩)의 개성, 오언고시에 담은 인정(人情)의 발견과 형상화

『담정유고(潭庭遺藁)』 권7에 수록된 「감담일기」는 〈북천일록(北遷日錄)〉과 〈기몽시(記夢詩)〉 2수로 이루어져 있다. 〈북천일록〉은 김려가 강이천(姜彝天)의 유언비어(流言蜚語)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1797년 11월 12일 의금부에 체포된 날부터 유배지 부령에 도착하여 서울 집으로 첫 소식을 보낸 다음 해 1월 26일까지의 일기이다. 일기는 11월 12일부터 부령에 도착한 12월 10일까지 남아 있고, 〈기몽시〉 첫째 수는 12월 25일 새벽에 지은 시이고, 둘째 수는 1798년 1월 11일 밤에 지은 시이다. 1819년 5월에 쓴 김려의 〈감담일기 뒤에 쓰다(題坎窞日記卷後)〉에 의하면, 원래의 일기는 두 권이었으나 1801년 다시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진해로 유배되는 와중에 1권을 분실하였다.[13]

12) 일기문학으로서 「감담일기」를 분석한 선행 연구로는 정우봉, 「일기문학의 관점에서 본 감담일기의 특징과 의의」(『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심경호, 「감담일기 해제」(『조선시대 개인 일기 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가 있다.

「감담일기」는 날짜별로 산문 일기를 쓴 뒤 그날의 감회를 읊은 한시를 수록하였는데, 양적으로도 한시가 산문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산문 일기가 그날의 시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경우도 많다. 체포 당일과 형조에 구금된 다음 날, 부령에 도착하여 보수주인(保守主人) 김명세(金明世)의 집에 들어간 날을 제외하면, 매일 일기 뒤에 한시가 1수-3수 달려 있다. 날짜별 수록 한시의 제목과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월 12일 시 없음 * 체포
11월 13일 시 없음 * 형조 구금
11월 14일 樓院道中馬上口號, 遙寄犀園(오언율시)
11월 15일 過楊門驛(오언고시 20구)
11월 16일 直灘道中(칠언절구), 過鐵原府, 謁金忠武公廟(오언고시 28구)
11월 17일 憩直木驛 (오언고시 28구)
11월 18일 過菩提遷 (오언고시 20구)
11월 19일 憩黃魚淵(오언고시 22구), 至阿瑟峙望金剛(칠언절구),
安邊府 (오언고시 28구)
11월 20일 氷渡南江(오언고시 28구), 冒寒入龜山, 留別南生仲厚(오언고시 56구),
宿德源, 聞宋文正公曾謫是府(칠언절구)
11월 21일 鐵關峴, 駐馬望海 (오언고시 24구)
11월 22일 午憩松浦鎭, 贈主人倭翁(오언고시 24구), 入高原郡,
別申端公希顚歸文川(오언고시 38구), 入永興府(오언고시 24구)
11월 23일 過黑石嶺(오언고시 32구), 過金波院作(오언고시 24구),
冒雪入定平府(오언고시 28구)
11월 24일 鶴仙亭(오언고시 24구), 宿咸興府(오언고시 48구)
11월 25일 踰咸關嶺(오언고시 28구)
11월 26일 過牛家鎭(오언고시 20구), 宿萍浦戍(오언고시 20구)
11월 27일 遇雪宿北靑府, 詠懷古蹟三首 : 丞相李文忠公恒福(오언고시 68구),
判尹鄭忠武公忠信(오언고시 68구), 尙書林簡憲公薰喆(오언고시 68구)

13)『潭庭遺藁』 권7, 〈題坎窞日記卷後〉"正廟丁巳冬, 余遭姜彝天飛語獄, 北竄慶源, 未幾, 移配富寧. 塊處無聊, 畧記其被誣根因按獄梗槩及沿路日錄, 合爲二卷, 名曰坎窞日記,寄示犀園. 辛酉之禍, 犀園亦被逮, 錦衣兄弟, 幷受拷掠幾死, 余謫牛海, 犀遷楚州. 丙寅, 始蒙恩放還, 收拾舊時書籍, 所謂坎窞日記者, 其上弓, 變出之日, 爲隣童秉畀回祿, 只存下弓, 而亦殘缺太半, 然棄之殊可惜, 玆倩侄子翥淵, 補綴謄寫, 以付叢書云. 己卯五月乙丑端陽, 潭士書于北山草屋."

11월 28일 鴈田(오언고시 32구)
11월 29일 麗雲臺最高頂, 觀日出作(오언고시 40구), 登侍中臺嘆之(오언고시 44구), 多寶谷(오언고시 24구), 憩南松亭(오언고시 24구), 宿羣仙洪(오언고시 32구)
11월 30일 至谷口驛, 承量移富寧之命, 志喜口號(오언고시 36구), 矗山道中(오언고시 24구)
12월 1일 摩雲嶺(오언고시 24구), 摩天嶺上作(오언고시 32구 2수), 獻山谷(오언고시 28구)
12월 2일 午憩澴平蕩人家, 見野中雪山作(오언고시 24구), 門岩(칠언절구)
12월 3일 次臨溟驛, 謁趙文烈公祠(오언고시 16구), 題重峯書院壁上(오언율시)
12월 4일 宿白桑堡, 贈慈翁尙泰(칠언절구)
12월 5일 高驂驛舍, 留別父老(오언고시 40구), 過皮道峴(오언고시 24구)
12월 6일 發明川府(오언고시 24구), 宿江家莊(오언고시 28구)
12월 7일 鬼門關(오언고시 32구), 過蝟頭岸(오언고시 26구)
12월 8일 宿永康倉(오언고시 26구)
12월 9일 崔達洞(오언고시 26구)
12월 10일 시 없음 * 부령의 김명세 집 도착

이상의 목록을 보면, 『감담일기』 대부분의 시는 제목으로 보아도 기행시이다. 유배형을 받고 한양 도성을 떠나 최종 도착지인 부령까지 가는 여정에서 매일 일기를 쓰고 시를 지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기행시를 쓰게 된 것이다. 물론 시를 읽어보면, 유배 가는 신세라 산수 유람의 기행시와 달리 유배인으로서의 고초와 울분이 주된 정조를 이루고 있지만, 지나는 곳의 경관과 소회를 결합한 기행시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형식을 보면, 4수의 칠언절구, 2수의 오언율시를 제외하면, 모든 한시가 오언고시로 총 시구가 20구-68구 정도의 중편이다. 고시는 염(廉)의 규칙이나 글귀 수의 제한이 없이 운(韻)만 달아 몇 구(句)로든지 짓는 형식이고, 특히 오언고시는 예로부터 서정에 가장 적합한 양식으로 활용되었다는 점[14]에서, 김려가 유배길의 체험과 소회를 시작화 하기에 오언고시가 가장 쉽고 편리한 형식이었을 것이다. 김려가 유배를 출발하여 11월 14일 처음으로 쓴 시 〈다락원 가는 길에 말 위에서 입에서 나오 대로 지어 멀리 서원에게 부치다(樓院道中,

14) 장유승, 「17세기 고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2, 31면.

馬上口號, 遙寄犀園)〉는 오언율시이고, 11월 16일 작 〈직탄 길에(直灘道中)〉는 칠언절구인데, 두 시는 모두 억울하게 유배 가는 처절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후 김려는 오언고시로 매일 새롭게 지나가는 유배 노정을 배경으로 그날 겪은 일과 심회를 읊었는데, 이 기행시들은 조선 후기 기행시의 전통과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밑줄 친 제목의 작품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제목에서 보듯이 이 작품들은 증별시(贈別詩)인데, 비록 편수는 4편에 불과하지만 김려 한시의 개성, 독자성이 처음으로 발현되는 시라 평가하고 싶다. 작품의 길이가 길지만, 전문을 인용하여 시상의 구성 방식과 시어 구사 방식, 시의 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15]

### 1) 〈추위를 무릅쓰고 원산에 들어갔다가 남이곤과 작별하며 주다(冒寒入黿山, 留別南生仲厚)〉의 사례

① 人道黿山好　사람들은 원산이 좋다지만
我道黿山惡　나는 몹쓸 원산이라 하겠네.
黿山十里間　원산 10리 길
颮風產鉅壑　커다란 골짜기에서 이는 사나운 바람
其氣撼瀅渤　그 기세 강물을 흔들고
其勢蕩遼廓　그 기세 들판을 쓸어버리네.
雲日晶無光　구름 속의 해는 빛이 사라지고
沙石亂走作　모래와 자갈 어지럽게 굴러다니네.
海水盡倒立　바닷물은 온통 뒤집힌 듯 솟구치고
銀闕從空落　달은 하늘에서 떨어진 듯.
閭閻數萬戶　민가 수만 호가
掩門慘蕭索　문을 닫아 적막한 모습 참혹하네.
路左僵屍者　길가에는 얼어 죽은 자들
哀哀紇干雀　눈 덮인 산에는 슬픈 참새 울음.
我亦下馬立　나 또한 말에서 내렸으나

15) 필자는 「조선 후기 유배 한시의 서정성—시 양식에 따른 서정의 표출 방식을 중심으로—」(『한국한시연구』 25, 한국한시학회, 2017) 238-244면에서 '중편 고시로 쓴 김려의 증별시(贈別詩), 인간애(人間愛)의 발견'으로 「감담일기」 소재 한시를 간략하게 분석한 바 있는데, 이하의 논의는 이 논의를 심화, 확장하였다.

寸步難着脚　한 걸음 떼기도 어렵구나.
兩指凍欲墮　두 손가락 얼어서 떨어져 나갈 듯
四體硬似縛　온몸은 굳어서 묶어놓은 듯.
一身不自保　이 한 몸 보존할 길 없어
慟哭叫冥漠　저 하늘 향해 목 놓아 우네.
② 南生古之人　고인의 풍모를 지닌 남생이
見客色嗟愕　나그네 모습 보고 깜짝 놀라서,
下階親肅揖　섬돌 아래로 내려와 인사를 차리고
携手坐煖閣　내 손을 붙들고 들어가 온돌방에 앉히네.
肥輭牛心串　살찌고 연한 소 염통 꼬치구이에
香釀鸚觜爵　향긋한 술이 술잔에 가득.
獸炭銅爐口　구리 화로에 숯불을 지피고
溫冷隨斟酌　더울세라 찰세라 술을 따르네.
素麪銀絲縷　은실 같은 새하얀 국숫발
朱果亦瓔珞　구슬 같은 붉은 과일.
爲言此雪寒　내게 하는 말이 "추위와 눈이
近來創饕虐　요즘 들어 더욱 혹심한데
煢煢南遷子　남쪽에서 오신 외로운 손님
貌淸氣脆弱　보아하니 약골의 선비군요.
旣無狐狢厚　두툼한 갖옷이야 없다 쳐도
奈玆綿袍薄　어찌 무명옷도 이렇게나 얇으시오?
丈夫千金軀　사나이 몸 천금같이 귀중하거늘
造次宜敬恪　잠시라도 삼가 몸조심하시오.
人命在須臾　사람의 목숨이란 경각에 달렸으니
萬死由一錯　아차 한번 실수로 죽기도 한다오.
歉荒業貧窶　올해는 흉년 들어 살림이 가난하여
粟飯猶精鑿　잡곡밥일망정 정성껏 지었으니
願君且安坐　원하건대 그대여 편안히 앉아
良夜樂相樂　이 밤 즐겁게 쉬시오.
緩急世所有　세상엔 뜻밖에 당하는 일 흔히 있나니
窮途幸依託　유배길에 부탁할 것 내게 맡기시오."
③ 深感主人意　주인의 마음씨 너무나 고마우니
賤子敢不諾　내 어찌 감히 허락하지 않으랴?
嚴程有期限　기한이 정해진 엄중한 길이라
以此相驅迫　자꾸만 떠나자고 재촉을 하네.

款款恭致謝　주인에게 진심으로 사례를 하며
脉脉留後約　뒷날 다시 보자 약속하였네.
宇宙雖廣闊　이 세상이 비록 넓고 넓지만
何處可棲泊　어디에 이 한 몸 깃들 수 있을까?
揮淚出門去　눈물을 흩뿌리며 대문을 나서니
暮天空寂寞　날 저문 하늘은 적막하기도 하구나.16)

이 시는 11월 20일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김려는 새벽에 안변을 떠나 얼어붙은 남강을 걸어서 건너 원산에 들어갔다. 이날 두 편의 시를 남겼는데, 하나는 〈얼음 위로 남강을 건너며(氷渡南江)〉이고, 다른 한 수가 바로 위의 시이다. 이 시는 총 56구의 중편 오언고시로, 입성(入聲)으로 일운도저(一韻到底)하였다. 시상은 크게 세 단락으로 전개되어 있다. ①단락(1구-20구)은 혹심한 겨울 날씨와 참혹한 광경을 묘사한 뒤, 그 속에 얼어붙은 몸으로 울부짖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②단락(21구-46구)은 마치 연극에서 무대의 배경(시공간)이 바뀌듯이, 장면을 완전히 전환하여 남생이란 인물을 등장시켜, 그가 자신에게 베푸는 온정의 행위를 묘사, 서술하였다. 이날의 일기를 통해 등장인물 남생은 이름이 남이곤(南履坤)으로 원산의 남천교 돌비석 앞 거리에 사는 부호이며, 김려 일행이 잠시 그의 집에서 쉬었음을 알 수 있다. 11월 20일 일기 중 남이곤과 관련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남천교 돌비석 앞 거리에 자리 잡은 남이곤의 집에 들어갔다. 그는 북방의 큰 부호였다. 그가 홍주 한 병을 데우고, 구운 소 염통 한 접시와 따끈하게 끓인 국수 한 그릇을 내어놓으며 먹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나를 붙들며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아마도 내가 가다가 얼어 죽을까 걱정해서인 듯하였다. 그러나 공인들이 투덜거리며 떠나자고 재촉하므로, 나는 겨우 집에 부칠 편지 한 장을 써서 남이곤에게 맡기고 길을 떠났다. (入南川橋石碑前衚衕南生仲厚履坤家, 迺北方大戶, 煖紅酒一壺, 炙牛心一部及熱麪一碗以饋之, 挽余使不得行, 盖慮其道中凍死也, 公人喃喃相促, 遂裁家書付南生, 發行.)

위 일기의 기록이 오히려 시의 ②단락보다 서술량이 적을 뿐 아니라, 내용

16) 이하 인용 시의 번역과 해당 일기의 번역은 김려 지음, 강혜선 옮김, 『유배객, 세상을 알다』(태학사, 2007)의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역시 간결하고 요약적이다. 시의 ②단락은 남이곤이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자신을 대접하고 위로하는 장면을 정성스럽게 재현하였다. 섬돌 아래로 내려와 자신의 손을 붙들고 온돌방으로 들어가는 남생, 소 염통 꼬치구이, 국수, 과일, 술이 차려진 상, 구리 화로에 숯불을 지피고 술을 데워 따르며 권하는 남생을 차례로 묘사하여, 마치 시의 독자는 그 현장에서 남생의 행동을 함께 보는 듯하다. 이어서 남생이 자신에게 들려준 위로의 말을 16구에 걸쳐 길게 인용하였는데, 이 역시 등장인물의 대사 같은 느낌을 준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처음 만난 사람이 보여준 따뜻한 인정, 조건 없이 베푼 온정이 오직 이러한 장면화를 통해 전해진다.

③단락(47구-56구)은 남생의 대접과 위로에 감사의 말과 작별을 고하고, 다시 고단한 유배길을 나서는 처량한 장면으로 마무리하였다. ①단락과 ③단락의 암울함 사이에 온정으로 빛나는 ②단락이 배치됨으로써, 이날 김려가 느낀 벅찬 감동이 부각된다. 산문 일기로 이미 이날의 힘든 여정과 남이곤이 베풀어준 인정을 기록하였지만, 이렇게 긴 호흡의 시를 통해 김려는 남이곤이란 인물과 그의 인정을 형상화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남이곤의 온정에 대한 자신의 감동을 표현할 수 있었다.

### 2) 〈고원군에 들어가, 문천으로 돌아가는 신희정과 작별하며 (入高原郡, 別申端公希頲歸文川)〉의 사례

아래의 시는 11월 22일 일기에 수록된 작품으로, 총 38구 오언고시로, 거성(去聲) 진운(震韻)으로 일운도저 하였다.

① 先師垂遺訓　　공자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지
十室有忠信　　‘작은 마을에도 충신(忠信)한 사람이 있다.’
偉哉申端公　　훌륭하네, 신단공〔신희정〕이여!
志氣神且駿　　그대의 뜻과 기상 뛰어나구나.
秀眉潔白晳　　짙은 눈썹에 해맑은 얼굴
紅脥明如蘤　　붉은 두 볼은 무궁화꽃 빛.
遇物輒勇敢　　남을 대할 때 용감하며

小心兼謹愼　조심하면서도 근실하구나.
其齡纔十八　나이는 이제 겨우 열여덟 살
前路利發軔　앞길이 탄탄하구나.
② 我來嚴程促　삼엄한 길 내 재촉받으며 가니
天怒方赫震　하늘이 노하여 벼락을 쳐대고,
沿道事驅迫　들리는 곳마다 길을 재촉해
疾若飄風迅　바람에 쫓기듯 빨리도 왔네.
端公獨意氣　하지만 그대만은 의협심이 많아
憐我恭承順　불쌍한 나를 극진히 돌봐주었네.
煮塏招暖安　따뜻한 온돌방에 나를 불러 쉬게 하고
勺醴啓喉潤　맛 좋은 술 부어 내 목을 적셔 주며,
左手持饘粥　왼손으로 죽 그릇을 당겨놓고
右手擎臛膾　오른손으론 고깃국을 받쳐 들고서,
逌然敬尊執　공손하게 어른으로 받들며
懇懇來勸進　정성껏 어서 들라 권하였지.
終宵不成寢　밤이 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서
款曲勤問訊　나의 병을 정성껏 구완하였지.
朝發文川郡　아침에 문천 고을 떠나올 때도
午憩松浦鎭　한낮에 송포진에서 잠깐 쉴 때도,
提携溪澗險　시냇길이 험하면 나를 붙들어주고
扶持巖壑峻　벼랑길이 가파르면 나를 잡아주었지.
窮道急人難　궁색한 길손 어려운 처지를 재빨리 살펴서
特立無悔吝　특별히 인색한 빛 비치지 않았었지.
③ 臨別忼慨泣　헤어질 때 강개한 눈물 흘리며
哀響金石振　애절하게 이르던 말 금석이 울리는 듯.
聖世蒐遺才　태평한 세월이라 숨은 인재를 모을 때면
至德文明濬　덕스럽고 글 잘하는 이 남김없이 뽑는다지.
信美棟樑具　진실하고 훌륭한 나라의 들보로
端公乃豪俊　그대야말로 걸출한 인재일세.
安得致名塗　어찌하면 그대에게 벼슬길 열어 주어
爾實邦之蓋　나라의 충신으로 채워볼까?

11월 21일과 11월 22일의 일기를 보면, 위 시의 작별 대상인 신희정은 문천군 관아 소속의 공인(公人, 하급 관원)으로, 문천군에서 고원군까지 김려의

호송을 맡은 18세 청년임을 알 수 있다. 신희정 관련 대목을 김려는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1월 21일) 이날 바람이 크게 불고 날씨가 또 몹시 추웠다. 덕원의 공인들과 함께 출발하여 철관령에 올라 말을 멈추고 바다를 보았다. 저물녘에 문천군에 들어가니 고을 수령 이상준이 관청에 나와 있는데, 내가 어지러워 쓰러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공인 신희정은 나이 18세로 외모가 준수하고 성품이 매우 어질었다. 그는 나의 병이 심함을 가엾게 여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차려 내왔는데,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였다. 희정은 한숨을 내쉬면서 데운 탕, 유밀과, 미음을 밤이 새도록 내게 권하였다.(是日大風, 天又酷寒, 與德源公人發行, 登鐵關峴, 歇馬觀海. 暮入文川郡, 倅李尙雧詣土司, 昏仆不省人事, 公人申希頲年十八, 形貌俊秀, 性甚仁厚, 悶余病甚, 邀往其家, 具飯以進, 余不能下筋, 希頲爲之嗟憐, 湯燒紅蜜果米飮, 達夜來勸.)

(11월 22일) 이날 새벽 신희정과 함께 길을 떠났다. 낮에 송포진(松浦鎭)에서 쉬었다. 송포진은 일명 전탄(箭灘)이라 하고, 또 소리포(疏離浦)라 하였다. 희정은 엿과 뜨거운 수제비를 얻어 가지고 와서 내놓았다. 대개 다른 공인들은 유배 가는 사람에게 붙어서 입고 먹으면서 가는 곳마다 빼앗는 통에 길가의 여염집이 소란스러웠다. 오직 희정만은 스스로 해결하면서 마을에서 술 한 잔 받아먹지 않았다. 주인집의 설씨 늙은이도 마음씨가 너그럽고 무던하여 나를 몹시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해가 질 무렵 고원군에 들어갔다. 군수 장현택이 관가에서 음식을 내주어 먹도록 하고는 곧 떠나보냈다. 헤어질 때 희정은 내 옷깃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 하는 말이 "가시는 길에 부디 몸조심하시오." 하였다. 그러고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 백 닢을 위서방의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길가 주막에서 술이나 사 자시오." 하였다. 희정은 먼 길에 평안하라 천만 번 당부하고서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다.(是日曉, 與希頲同行, 午憩松浦鎭, 一名箭灘, 一名踈籬浦. 希頲貢來餳熱飩以進, 盖他公人, 以謫客爲衣飯, 所過藉買侵漁, 閭里騷擾, 獨希頲自爲措辦, 不喫村家一盃酒也, 主人倪翁性又醇謹, 待余甚欵曲. 薄暮入高原郡, 郡守張鉉宅, 自官饋飯, 旋卽發送, 臨別, 希頲挽衣灑淚, 但言行路千萬保重, 持楡葉一百貯韋囊曰, 路店沽酒而飮, 行李平安, 千叮萬囑, 揮淚而去.)

위에 예시한 이들의 일기를 보면, 남이곤 관련 기록과 비교해 일기의 기록이 매우 자세하다. 물론 남이곤의 경우는 잠시 만난 인물이고, 신희정은 이틀

간 유배길을 함께 한 인물이므로 자연히 서술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일기에 주목되는 것은 남이곤 때와 달리 호송군 신희정이란 인물의 됨됨이와 그가 자신에게 베푼 온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점이다. 특히, 22일 일기의 마지막 대목인 신희정과의 작별 장면은 소설적 묘사와 서사를 구사하고 있다. 신희정의 몸조심하라는 당부의 말과 위서방[韋奴, 김려의 하인]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서 하는 말을 등장인물의 대사처럼 그대로 옮겨놓았다. 이처럼 이날의 일기는 소설적 형상화를 통해 자신의 소회를 덧붙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자신이 받은 감동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김려는 일기에 그치지 않고 38구에 달하는 긴 시를 지어 신희정이란 인물을 시로 기념하였다.

①단락(1구-10구)은 등장인물 신희정을 소개하였다. "열 집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나만큼 충성스럽고 신실(信實)한 사람이 살고 있다"(『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신희정의 인물됨을 요약 제시하고, 이어서 뜻과 기상, 수려한 외모, 용감하고 근실한 행동을 차례로 언급하였다. 이런 칭송은 산문 일기에는 없는 내용이다. 전체 10구 중 8구를 칭송으로 서술한 뒤, 그의 나이가 겨우 18세로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임을 알렸다. ②단락(11구-30구)은 임금의 분노를 입어 떠나는 삼엄한 유배 일정이라 호송군들의 재촉조차 사납기 그지없는 유배길에서 신희정이 자신에게 베푼 온정을 곡진하게 묘사, 서술하였다. 젊은 호송군 신희정이 유배죄인인 자신을 따뜻한 온돌방에 불러 쉬게 하면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한 자신을 보살피는 장면에서 "왼손으로 죽그릇을 당겨놓고, 오른손으로 고깃국을 받치는" 행동은 산문 일기에 보이지 않는 세부적인 묘사이다. 또, '험한 시내 길과 벼랑길에서 넘어질까 자신을 붙들어주는' 행동 역시 산문 일기에 보이지 않는 묘사이다. 이렇게 ① ②단락은 산문 일기에 기록하지 않은 신희정의 인성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 서술하여, 신희정의 인정과 자신의 감동을 형상화하였다.

③단락(31구-38구)은 신희정과의 작별 장면을 단 2구로 요약 서술하였는데, 이는 해당 장면이 산문 일기에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산문 일기에서 쓰지 않았던 이 날의 소회를 길게 토로하였다. 그것은 바로, 신희정이 나라의 들보가 될 숨은 인재[遺才]니 관직에 올라 진정한 충신이 되기를 바

라는 마음이다. 이러한 신희정에 대한 평가는 ①단락의 신희정 인물 소개와 수미상관(首尾相關)을 이루고 있다. 지방 관청 소속 공인 신분의 인물이 실제 현실에서 벼슬길〔名塗〕에 나가 나라의 충신〔邦之蠹臣〕이 될 수 없는 것이 당대의 현실인데, 김려는 신희정이란 인물을 통해 조선의 신분제를 벗어나 새로운 인재관을 각성하게 되고, 이러한 각성이 바로 이 시의 또 하나의 창작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고참 역사에서 촌로들과 작별하며 주다(高驂驛舍, 留別父老)〉의 사례

다음의 시는 12월 5일 일기에 수록된 작품으로, 총 40구의 오언고시로 상평성(上平聲) 진운(眞韻)으로 일운도저 하였다.

① 過嶺行幾日　마천령 넘어 며칠을 걸었던가?
高驂俗最醇　고참 마을 풍속이 제일로 순박하네.
父老聞我至　마을 늙은이들 내 왔다는 소문 듣고
披雪雜然臻　눈길을 헤치며 죽 모여들었네.
携杖度北巷　지팡이 짚고 뒷마을에서 건너왔고
曳屨招西隣　신발을 끌며 서쪽 이웃도 왔네.
褎衣博帶者　소매 넓은 도포에 큰 띠를 두른 이들
坦率露天眞　진솔하게 천성을 드러내네.
欵欵恭問訊　내 사정 물어보고 정성으로 위로하며
切切傾廩困　뒤주의 낟알 쏟아내어 친절히 대접하네.
② 遠路風塵中　“세상풍파 속에 먼 길 오시느라
行色甚苦辛　모진 고생으로 행색이 말이 아니오.
婉孌南來子　남쪽에서 오신 잘생긴 손님
綠髮當靑春　머리털 검푸르니 청춘이겠군요.
漢京大都會　대도회지 한양은
文物正斌斌　문물이 참으로 번화하겠지요.
況復讀聖書　더군다나 성현의 글을 읽은
儒冠寧誤身　선비가 어찌하여 몸을 망쳤소?
不知何罪過　모르겠소, 무슨 죄를 지었길래
淪落關塞垠　거친 북관으로 떨어졌는지?”

③ 我聞面似劉　내 그 말 듣고 나니 얼굴이 쪼개질 듯
不語淚沾巾　말도 하기 전에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
平生積累釁　“평생에 지은 죄가 많고 많지만
高覆鑑蒼旻　저 푸른 하늘이 굽어보실게요.
明明九重后　구중궁궐 안에 명철하신 상감님
穆穆體天仁　그 마음 하늘처럼 인자하시어
生死榮悴之　사람들의 생사고락 틀어쥐고서
四時各隨倫　언제나 형편 따라 보살피거니,
賤子蒙恩偏　미천한 이 몸도 그 혜택 입었거늘
豈可論笑噸　어찌 감히 쓰다 달다 말하리요?
哀哀方寸恨　마음속에 서린 애달픈 원한은
高堂存老親　집에 늙은 부모님이 계신 것이라오.
宇宙雖宏濶　이 세상이 아무리 넓다 하지만
此寃無涯津　이 원한 풀 길이 전혀 없군요.
骨肉竟相離　핏줄 나눈 형제들 다 이별하고
予獨何辜人　나 홀로 무슨 죄로 여기 왔는지?
長者旣有問　어르신 기왕지사 이런 일 물으시니
賤子敢重陳　내 다시 그 무엇을 한탄 하리요?”
父老聞此言　늙은이들 이 말을 듣고 나서
淸淚空漼漼　하염없이 맑은 눈물만 흘리고 있네.

①단락(1구-10구)은 고참역 주변 촌로들이 등장하여 자신을 대접하는 장면이다. 마천령 이북 지역에는 주막이나 밥집이 없고 돈도 유통되지 않는 벽지(僻地)라, 김려 일행은 여염집에서 공짜로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한양에서 유배죄인이 왔다는 소문에 순박한 산골 마을이 한양 양반 구경으로 떠들썩해지는 광경을 인상적으로 묘사하였다. 눈길을 헤치며 찾아온 촌로들은 지팡이 짚고 오는 모습, 신발을 끌며 오는 모습, 넓은 도포 소매와 큰 띠의 옷차림으로 제각각 형상화됨으로써, 여러 인물이 한 무대에 등장하는 느낌을 준다. 이 인물들이 자신을 가엾게 여겨 뒤주를 털어서 밥을 지어 대접한다. 호기심에 구경 온 산골 늙은이들이 가엾은 행색의 자신을 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정을 주는 것에서 김려는 천진(天眞) 곧 인간의 본성인 인정을 발견하고 있다.

②단락(11구-20구)은 10구에 걸쳐 촌로의 말을 대사처럼 인용하였다. 불쌍

한 행색을 가엾어하면서 한양의 젊은 양반이 무슨 죄를 지어 북방까지 유배를 왔는지 묻는 말이, 실제 시골 늙은이의 말 그대로를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17] ③단락(21구-40구)은 촌로의 따뜻한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는 자신의 말을 대사처럼 인용하였다. 자신의 죄야 하늘이 알아주고 또 임금이 보살필 것이라 괜찮지만, 창졸간에 작별한 늙은 부모와 형제, 가족에 대한 회한(悔恨)은 풀 길이 없다고 하였다. 김려가 실제 촌로들에게 ③단락의 말과 같이 그대로 말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촌로들의 관심과 위로에 대해 진심 어린 답변을 하였을 것이다. ③단락의 마지막 구절은 16구에 걸친 긴 답변을 듣고서 촌로들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맺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시는 고참역 공터를 배경으로 촌로들과 김려 자신이 주고받은 긴 대화를 재현하는 것으로 시상을 구성하였다. 김려가 12월 5일 쓴 일기를 보면, 고참역과 관련해서는 한낮에 이곳에서 쉬었다는 것과 이 고참역이 제법 부유한 마을인 것만을 기록하였을 뿐이다.[18] 이렇게 보면, 김려는 고참역 촌로들이 보여준 인정과 그들과 자신이 나눈 교감, 그리고 자신이 받은 감동을 특별히 기억하기 위해 이 시를 따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에서 주목할 점은 앞의 두 시와 비교해서, 시 속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길게 재현한 점이다. 비유하자면, 앞의 두 시가 남이곤과 신희정이란

17) 이 시의 ① ②단락과 비슷한 시상 전개는 11월 30일 일기에 수록된 〈곡구역에 이르러 부령으로 유배지를 옮기라는 명령을 받고 기뻐하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읊다(至谷口驛, 承量移富寧之命,志喜口號)〉(총 36구의 오언고시, 상성 유운(有韻)으로 일운도저)에서도 보인다. 이 시는 곡구역(谷口驛)에서 경원에서 부령으로 유배지를 옮기라는 공문을 받고 기뻐서 쓴 시로, 곡구역 공터에서 공문을 가지고 온 파발이 등장해 자신에게 공문을 전달하며 하는 말을 재현한 전반부와 저자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대하며 위로하고 축하하는 말을 재현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저자 사람(市人)이 건네는 말은 위 시의 ②단락과 유사하다.

18) 해당 일기는 다음과 같다. “이날 날이 조금 따뜻하였다. 새벽에 출발하여 정오에 고참역(古站驛) 일명 고참적(高驂磧)에서 쉬었는데 마을이 제법 부유하였다. 피도고(皮道嵁) - 속명(俗名)은 피두안(皮斗岸) 혹은 피덕(皮德). 덕은 방언에서 언덕이다. - 를 지나서 저녁에 노전항(蘆田項) 시골집에서 잤다. 마천령 북쪽으로는 주막과 밥집이 없어서 다만 마을 여염집에서만 사 먹을 수 있었다. 각 고을 아전과 군관들이 공무로 다닐 때 공인(公人)이라 부르는 자들은 모두 공짜로 밥을 억지로 얻어먹는다. 대개 마천령 이북에서는 돈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是日日稍溫, 曉發午憩古站驛, 一名高驂磧, 村頗富饒. 過皮道嵁, 俗名皮斗岸, 或曰皮德, 德者方言岸也, 夕宿蘆田項村舍. 過摩天以北, 無酒肆飯店, 只從村戶買喫, 各邑吏校因公而行, 號曰公人者, 皆白買討食, 盖嶺以北, 不行錢故也.)”

인물이 주인공이고 자신이 보조 인물이라면, 이 시는 촌로들이 보조 인물이고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셈이다. 이는 유배의 여정에서 새로운 인물로 변화해가는 자기 자신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세 편의 증별시를 읽어본 결과 공통적인 특징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다. 첫째, 인물(김려가 만난 특별한 사람)을 묘사하고 이야기(김려가 그 인물들과 나눈 체험)를 서사하며, 소회(자신의 감동)를 진술하기 위하여 모두 중편 분량의 오언고시 형식으로 증별시를 선택하였다. 둘째, 증별의 대상이자 시속 인물은 김려가 유배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로, 계층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다. 셋째, 시상의 구성 방식은 '인물의 등장과 소개 – 인물이 자신(유배객)에게 보여준 온정의 행동과 말의 극적 재현'이란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곧 인정의 형상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세 편의 시는 인물에 대한 세부 묘사와 서사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쓴 서술적, 서사적, 심지어 극적이기조차 한 서정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19] 이 세 편 시의 주제는 모두 유배길에서 처음 만난 새로운 유형의 인간들—변방인, 하층민—이 보여준 온정과 그에 대한 감동이라 할 수 있는데, 김려 개인의 실제 체험이 시속 서정 자아의 체험이 되어 개별적 인정과 감동을 넘어서 보편적인 인정과 감동으로 확산한다.

여기서 김려가 「감담일기」를 언제 어디서 쓴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려는 〈감담일기 권후에 쓰다(題坎窞日記卷後)〉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정조 정사년(1797) 겨울 내가 강이천의 유언비어 옥사에 연루되어 북으로 경원에 유배되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부령으로 이배(移配) 되었다. 홀로 지내며 무료하여, 무고를 당한 근본 원인과 옥사 처리의 개요 및 연로(沿路)의 일록(日錄)을 대략 기

19) 인물의 등장과 극적 재현은 〈기몽시(記夢詩)〉 첫째 수[총 86구의 오언고시로 하평성(下平聲) 양운(陽韻) 일운도저]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시는 12월 25일 새벽에 고향 집에 다녀온 꿈을 깬 뒤 쓴 시이다. 꿈속에 돌아간 집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등장하여 자신을 반기는 행동을 묘사하였다. 2구 또는 4구로 한 인물의 등장 장면을 담았는데, 고유한 이름과 그 인물의 개성적 행동을 집약적으로 묘사, 서술하였다. 특히, 말 고삐를 거두는 종 계득이(繼得歡我至, 下堂收馬韁),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나와 반기는 개(大狗歡我至, 二雛亦相將)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 묘사하였다. 홍진옥, 앞의 글, 177-181면에서도 〈기몽시〉의 시상 전개와 인물 등장의 묘사 등을 잘 설명하고 있다.

록하였다. 두 권을 합해 '감담일기'라 이름을 붙이고 서원〔동생 김선(金鐥)〕에게 부쳤다. 신유년(1801)의 화(禍)에 서원 역시 체포되어 금의(錦衣)의 형제가 나란히 고문을 받아 거의 죽을 번하였다. 나는 우해(진해)에 유배되고 서원은 초산에 유배되었다. 병인년(1806) 성은을 입어 유배에서 돌아와 옛날의 서적을 수습하였는데, 이른바 『감담일기』는 상권이 변고가 나던 날 이웃집 아이 때문에 불길에 던져졌고, 다만 하권이 남았는데 그마저도 태반이 사라졌다. 하지만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조카 학연에게 보철(補綴)하여 깨끗이 베껴 써서 『담정총서』에 붙이게 하였다. 기묘년(1819) 5월 을축 단오에 담사가 북산초옥에서 쓴다.(正廟丁巳冬, 余遭姜彝天飛語獄, 北窟慶源, 未幾,移配富寧. 塊處無聊, 畧記其被誣根因按獄梗槩及沿路日錄, 合爲二卷, 名曰坎窞日記,寄示犀園. 辛酉之禍, 犀園亦被逮, 錦衣兄弟, 幷受拷掠幾死, 余謫牛海, 犀遷楚州. 丙寅, 始蒙恩放還, 收拾舊時書籍, 所謂坎窞日記者, 其上弓, 變出之日, 爲隣童秉畀回祿, 只存下弓, 而亦殘缺太半, 然棄之殊可惜, 玆倩侄子鬻淵, 補綴謄寫, 以付叢書云. 己卯五月乙丑端陽, 薝士書于北山草屋.)

윗글을 보면, 김려는 부령에서 홀로 들어박혀 살 때 무료하여〔塊處無聊〕 「감담일기」를 저술하였고, 무고의 원인과 옥사 처리의 개요를 기록한 상권이 현재 사라져 버렸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매일의 여정과 날씨, 간단한 기록은 유배길에서 기록한 초고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20구가 넘는 일운도저의 오언고시를 촉박한 유배길 현장에서 지었을 리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감담일기」의 한시들은 부령에 도착한 뒤 글을 쓸 여유가 생겼을 때 유배 여정을 회상하면서 쓴 시인데, 일기와 결합하여 쓴 시라 마치 당일 현장에서 쓴 시의 시점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사례로 든 세 편의 시를 증별시로 쓴 이유이다. 당일 현장에서 쓴 증별시라면 남이곤, 신희정, 고참역 촌로에게 직접 시를 주었겠지만, 부령에서 쓴 증별시들은 실제 줄 수가 없다. 김려가 줄 수 없는 증별시를 쓴 것은 남이곤, 신희정, 고참역 촌로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인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또 그들과 나눈 교감과 그 교감으로 인해 새롭게 알게 된 인간 이해와 감동을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요컨대 김려는 인정을 형상화한 증별시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적, 독자적 기억의 시, 추억의 시, 기념의 시를 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 3. 결론, 「사유악부」로의 발전과 그 의미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김려 한시의 개성, 독자성이 가장 두드러진 지점을 찾아 그 양상을 설명하는 데 있었다. 이에 김려가 유배 경험을 처음으로 쓴 「감담일기」 소재의 한시 중 증별시를 주목하고, 〈冒寒入竈山, 留別南生仲厚〉 〈入高原郡, 別申端公希顚歸文川〉 〈高驂驛舍, 留別父老〉의 세 작품을 분석하였다. 세 작품의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배 도중 만난 특별한 인물이 자신에게 베푼 온정을 기억하고 자신이 받은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 중편의 오언고시 형식의 증별시를 선택하였다. 둘째, 증별의 대상이자 시속 인물은 김려가 유배길에서 처음 만난, 계층과 신분을 달리하는 주변부 사람들이다. 셋째, 시상은 '인물의 등장과 소개 – 인물이 자신에게 보여준 온정의 행동과 말의 극적 재현'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곧 인정의 형상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편의 증별시는 이별의 현장에서 써서 준 시가 아니라 유배지 부령에 도착한 후 쓴 시들로, 남이곤, 신희정, 고참역 촌로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인정과 자신의 감동을 추억하고, 그들과 나눈 교감과 그 교감으로 인해 새롭게 알게 된 인간 이해를 기념하고자 쓴 시이다.

이상과 같은 증별시의 양상은 전통적인 근체시 형식의 수작(秀作)과는 다른, 김려 특유의 개성이 더욱 빛을 발하였다. 이런 양상은 이후 김려가 진해에서 쓴 장편 연작시 「사유악부」로 이어진다. 〈사유악부 서문(思牖樂府序)〉을 통해 창작 동기와 상황을 보면, 「사유악부」는 부령에서 진해로 이배(移配) 된 뒤 적소(謫所)에서 하루도 함경도 부령을 그리워하지 않는 적이 없어서 쓴 시이다. 이런 점에서 「사유악부」는 기본적으로 회상의 시, 기억의 시, 추억의 시이다.[20] 이는 「감담일기」의 증별시가 부령의 적소에서 부령까지 오는 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추억하고 기념한 것과 상통한다. 「사유악부」의 모든 시에

20) 홍진옥은 「사유악부」가 기속악부(紀俗樂府)에 속하지만 '악부'보다 '사유'에 작가의 목적이 더욱 집중되어 있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 해당 지역의 풍속 등을 담는 악부시와 차별된다고 하였다. 또, 「사유악부」의 주안점은 제목에서 '생각하는 창문 또는 그리움의 창문'이란 사유(思牖)를 내걸었듯이 부령의 풍속이나 특색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부령을 향한 그리움의 감정이며, 부령은 이미 떠난 온 과거의 공간이지만 '기억'을 통해 '문학적으로 재현된 공간'이며, 그리움의 정체는 부령에서 자신과 함께 한 주변부 인물들과 김려 자신이었다고 하였다. 홍진옥 앞의 글, 84면, 92면, 95면.

도입 구절로 반복되는 “그대 어디를 그리워하나? 그리운 곳은 저 북쪽 바닷가(問汝何所思, 所思北海湄)”가 바로 기억, 추억의 시공간으로 시점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구절에서 『악부시집(樂府詩集)』 소재 무명씨(無名氏)의 〈유소사(有所思)〉의 첫 구 “그리운 임, 바로 넓은 바다 남쪽에 있네(有所思, 乃在大海南)”나 북조(北朝)의 민가(民歌)로 알려진 〈목란사(木蘭辭)〉에 보이는 “問女何所思, 問女何所憶.”이 연상되며, 신흠의 〈유소사(有所思)〉에 보이는 “생각나는 이 어디에 있는가? 저 하늘가 바다 밖에 있네(有所思在何許, 乃在天之涯海之外)” 등이 연상된다. 이처럼 「사유악부」는 〈유소사〉의 전통을 도입부에 변용함으로써 작시의 동기가 그리움임을 알게 한다. 또한, 「사유악부」의 모든 시가 12구(반복되는 도입 구절을 제외하면 10구)의 단형인 점 역시 〈유소사〉가 대체로 칠언고시 8구나 오언고시 8구로 즐겨 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사유악부」는 특정 인물을 기억하고 그의 인정을 추억하기 위해 쓴 증별시의 작시 체험을 일차적으로 바탕으로 삼고 거기에 〈유소사〉의 전통을 변용하여, 진해에서 부령의 인물들과 함께 나눈 인정을 추억하는 시를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감담일기」의 증별시는 김려가 한양에서 부령까지 가는 유배길에서 만난 북방민과 하층민 인물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인정을 형상화하였는데, 이러한 인정의 형상화는 「사유악부」에 이르러 더욱 확장되고 다양하게 발전한다. 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계층이나 신분, 처지를 벗어나서 사람과 사람으로 교감했던 경험들은 부령에서의 삶을 바꾸어놓았으니, 부령에서 김려는 다양한 지역민들과 교유하며 유배 이전과 다른 세상을 알아갔다. 「사유악부」는 서로 사랑했던 부령 기생 연희(蓮姬)는 물론이려니와 술친구로 사귄 서리, 무관 출신 친구들, 그리고 그가 만난 다양한 부령 주민들을 회상하고 추억하였다. 짚신 삼고 자리를 짜는 머슴인 황씨의 아들에게 옷을 억지로 선물해주었더니 다음 날 아침 성 서쪽 시장에서 신을 팔아 술 한 병을 사 왔던 추억을 담았는가 하면, 술을 팔아 생계를 해결하는 이웃집 과부 성씨가 새로 술을 거를 때마다 유배객을 불쌍하게 여겨 담 너머로 술 한 병씩을 건네준 추억을 담았다. 이런 시작들은 「감담일기」의 증별시 속 인물인 남이곤, 신희정 등과 유사하다.[21]

시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형상화 방식 역시 증별시와 「사유악부」는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묘사된 특정 시공간을 배경으로 고유명사로 호명된 인물들—청암 사는 차노인, 서문 밖 남쪽 개울 오른편에 사는 황부장, 성 동쪽 길 두 번째 다리 곁에 사는 연희, 구정천의 박한기, 연천 사는 장반수, 강촌 사는 김승 등등—이 특징적인 용모와 행동의 묘사, 서술을 통해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있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특히, 인물의 말이나 자신과 주고받은 대화, 또는 편지를 대사처럼 재현하였는데, 이 역시 증별시와 유사하다. 다만, 중편의 긴 호흡으로 인물을 형상화한 증별시와 달리, 「사유악부」는 총 10구 안에 인물과 인정의 형상화를 압축하여 마치 극의 한 장면을 클로즈업한 것처럼 한 점이 다르다. 또한, 증별시가 등장 인물에 대한 추가 정보를 그날의 산문 일기를 통해 보완한 것과 달리, 「사유악부」는 시에 담을 수 없는 인물의 정보를 주석을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감담일기」의 시는 증별시이기 때문에 작별의 대상인 인물이 시의 중심이 되고, 자신이 보조적 인물이 되어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양상이 「사유악부」에 이르면, 회상의 중심이 '타인 〈 타인과 나 〈 나'로 확대되어 간다. 이런 점에서 「사유악부」가 유배객 김려의 초상화이기도 하다는 홍진옥의 설명은 핵심을 간파하였다.[22] 〈고참 역사에서 촌로들과 작별하며 주다(高驂驛舍, 留別父老)〉에서 총 40구 중 16구를 사용하여 촌로들에게 답하는 자신의 말을 직접 인용해 '유배객으로서 자신'을 형상화했던 양상이 「사유악부」에서는 더욱 확대되어 간 것이다.

그러면, 증별시와 「사유악부」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인물의 형상화, 인정의

---

21) 김려가 유배 경험을 통해 북방의 지역민에게는 그리움이나 애정의 시각, 태도를 보이는 데 비해, 남방의 지역민에 대해서는 그다지 애착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감담일기」와 「사유악부」에서 그리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진해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착의 시문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해이어보』를 보면, 기속시(紀俗詩) 〈우산잡곡(牛山雜曲)〉에서 김해 지역민을 따뜻한 시선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남방 지역민에 대해서도 애착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배 후 김려의 삶이 유배 때와 달라졌기 때문에 진해 지역민의 인정을 추억하는 한시가 따로 창작되지 않은 것이라 보인다.

22) 「사유악부」에서 '나 아(我)'를 검색해보면, 대부분 시에 1회 이상 '아(我)'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김려 스스로 회상한 '나의 모습, 나의 경험'이 주된 시재(詩材)임을 알 수 있다.

형상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마도 김려가 20대 시절부터 애호하였던 소설, 소품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유악부」 가운데 부령의 무관 정부장(鄭部將) 삼 형제를 회상, 추억한 시가 있다. 그 시를 보면, 정부장 삼 형제는 무예에 능통하고 손재간이 뛰어나 온갖 재주가 능한데, 거문고와 피리 연주까지 잘하고, 수를 잘 놓은 인물이라 묘사, 서술하였다. 그 시에서 김려는 그들 형제의 무예 실력을 십팔반 무예(十八武藝)라 칭하고, 또 재능을 연소을(燕小乙)에 비유하였다.[23] 십팔반 무예는 중국의 고대 희곡과 소설에서 사용하는 말로, 각종 무예 기술을 가리키는 말이고, 연소을은 바로 〈수호전(水滸傳)〉의 등장인물 연청(燕靑)의 다른 이름으로, 흰 살결의 온몸에 꽃 수를 먹물로 뜬 인물로, 악기를 잘 타고 무예에 능한 인물이다. 부령에서 알게 된 이런 멋진 삼 형제를 〈수호전〉 같은 소설 속 인물로 바로 연상하여 묘사, 서술한 데서, 시속 인물의 형상에 소설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해배 후 창작된 김려 한시에서는 「감담일기」의 증별시나 「사유악부」와 같은 인정의 형상화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만선와잉고(萬蟬窩賸藁)」의 한시들은 근체시 형식으로 채소와 과일, 기물 등을 읊으면서 자신의 일상을 형상화하였고, 〈황성리곡〉과 〈상원리곡〉은 근체시 형식의 기속시로 자신의 일상을 포함하여 민간의 풍속을 발랄하게 포착하였다. 〈황성리곡〉, 〈상원리곡〉에 포착된 인물 역시 하층민, 변방민, 여성 등 주변부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감담일기」의 증별시나 〈사유악부〉 속 인물과 상통하지만, 구체적 인물의 인정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이는 유배에 처한 자신과 그런 자신에게 주변부 인물들이 베푼 인정을 기억하고 그 감동을 전하고자 한 시 창작의 직접적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23)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湄. 慧心巧手鄭部將, 兄弟三人不相讓. 十八武藝皆貫通, 且兼百工無不工. 品竹彈絲莫須論, 一日能繡雙靑驄. 天生浪子古無匹, 爾名端合燕小乙. 每持靑黃朱墨絛, 爲我晴牕粧書帙. 鄭元秀, 元直. 元興三兄弟, 幷有巧思.

## ▮ 참고문헌

金 鑢, 『薖庭遺藁』, 한국문집총간 289, 고전번역원 DB.
『大東詩選』, 아세아문화사, 198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고전번역원 DB.
김 여 지음, 박혜숙 옮김, 『부령을 그리며』, 돌베개, 1996.
김 여 지음, 박강혜선 옮김, 『유배객, 세상을 알다』, 태학사, 2007.

강혜선, 「조선 후기 유배 한시의 서정성—시 양식에 따른 서정의 표출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25, 한국한시학회, 2017.
민병수, 『韓國漢詩史』, 태학사, 1996.
박혜숙, 「사유악부 연구」,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_____, 「담정(薖庭) 김여(金鑢)—새로운 감수성과 평등의식」, 김여 지음, 박혜숙 옮김, 『부령을 그리며』, 돌베개, 1996.
박준원, 「金鑢의 한시에 나타난 '妓女'의 문학적 형상」, 『동방한문학』 74, 동방한문학회, 2018.
심경호, 「감담일기 해제」, 『조선시대 개인 일기 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申章燮, 「薖庭 金鑢의 「思牖樂府」와 修辭的 特質」, 『語文論集』, 중앙어문학회, 2017.
이힐한, 「김려의 유배 체험 한시에 나타난 일상성과 통속성」, 『한국지역문학연구』 8, 한국지역문학회, 2019.
장유승, 「17세기 고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정우봉, 「일기문학의 관점에서 본 감담일기의 특징과 의의」,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홍진옥, 「담정(薖庭) 김려(金鑢)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Kim Ryeo's Chinese poems, the discovery and shaping of human nature : Focusing on the farewell poems in *Gamdam Diary*

Kang, Hyesun*

Kim Ryeo's perception, worldview, and literature changed through exile. The first creation of the experience of exile is *Gamdam Diary*. The farewell poems included in Gamdam Diary were the works in which his poetic personality was fully developed, and later developed into *Sayuakbu*. I analyzed the way of discovering and shaping human nature by giving examples of three work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work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describe the special person he met, to describe the experiences he shared with that person, and to express the impression he received, he chose the mid-length farewell poem in the form of five character ancient poem. Second, the objects of farewell are the people he met for the first time on the road of exile, who are of different classes and social status. Third, the poem consists of the appearance and introduction of a character, and the dramatic reproduction of the warm behavior and words that the character showed toward himself. This can be said to be a way of shaping human nature. These three poems were not written at the place of farewell, but afterward in Buryeong, the place of exile. He wrote these poems to remember the warmth of Nam Igon, Shin Heejeong, and senior village elders showed him and his impressions, as well as to commemorate the sympathy he shared with them and the new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he learned from them. In other words, Kim Ryeo wrote poems of memory, poems of remembrance, and commemorative poems in her own unique way through farewell poems that embodied human nature. This later developed into Sayuakbu, a series of poems written in Jinhae while missing the people of Buryeong.

Keywords: human nature, figuration, exile, *Gamdam Diary*, five character ancient poem, farewell poem, *Sayuakbu.*

접수일: 2022.12.09.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3.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ungshin Women's Univ.